

# 주거빈곤과 지역빈곤의 이중위험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부모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주영선\*\* · 정익중\*\*\*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주거환경과 지역사회환경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주거와 지역사회가 이중으로 빈곤한 것이 부모의 양육행동을 매개로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13차년도 가구, 가구원, 아동부가조사 자료와 통계청의 지역사회 자료를 결합하여 개인 수준과 지역 수준의 다층구조 자료에 적합한 다수준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해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거빈곤과 지역빈곤의 이중위험은 가구 소득을 비롯한 개인적, 가족적 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부모의 교육참여 수준을 감소시킴으로써 청소년 비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모의 지도감독과 학대를 통한 매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부모의 양육행동과 개인적, 가족적 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주거빈곤과 지역빈곤의 이중위험은 청소년 비행을 직접적으로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 비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주거빈곤과 지역빈곤의 이중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적 개입 방안 및 부모의 적절한 양육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였다.

**주요어:** 주거빈곤, 지역빈곤, 청소년 비행, 양육행동

\* 이 논문은 2016년 정부(교육비)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며(NRF-2016S1A3 A2924375), 제12회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주저자,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BK21 Plus 박사후과정 연구원(youngsunjoo86@gmail.com)

\*\*\* 교신저자,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ichung@ewha.ac.kr)

## 1. 문제 제기

빈곤은 청소년 비행의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로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특히 만성적으로 빈곤할 경우 비행집단이 될 수 있으며, 비행을 지속하게 될 가능성도 크다(정익중, 2009). 하지만 기존 청소년 비행 연구에서는 빈곤을 가족 내 자원에만 초점을 두고 가족의 빈곤 상태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력에 대해서만 분석했다는 데에 한계가 있다. 빈곤한 경우 주거환경도 열악할 가능성이 높으며 열악한 지역사회에 거주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빈곤의 개념을 더 확장시켜 환경적·물리적 관점에서 빈곤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빈곤은 열악한 주거환경과 관련성이 높고(김진희·이상록, 2011), 주거빈곤은 청소년의 학업성취(김광혁·신다은, 2013), 신체건강 및 내재화문제(임세희, 2010), 주관적 행복감(임세희·김선숙, 2016) 등 건강한 발달을 저해시킨다. 또한 빈곤할수록 열악한 지역사회에 거주할 가능성도 높으며(김진희·이상록, 2011), 지역사회 빈곤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불안, 우울 등 심리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세원, 2009). 주거환경과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이 기본적인 생활과 활동을 영위하는 장소로,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적절한 주거환경과 지역사회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주거환경과 지역사회 환경의 영향력을 개별적으로 분석하였다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주거와 지역사회 환경의 이중위험이 청소년 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 비행은 점점 저연령화되고 있으며, 소년법에 의한 흉악범죄와 폭력범죄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점점 잔인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9). 청소년 비행은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고 성인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진혜민·배성우, 2012) 청소년 비행의 원인을 탐색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빈곤의 개념을 확장시켜 주거빈곤과 지역사회 빈곤의 이중위험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주거와 지역사회는 분리할 수 없는 개념이며, 주거는 지역사회 안에 있기 때문에(임세희, 2010) 주거환경과 지역사회를 동시에 고려하여 이중빈곤의 위험성이 청소년 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도 분석하고자 한다. 주거와 지역사회가 이중으로 빈곤한 것은 가족의 자원을 제한하고 스트레스를 높이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관점에서의 두 가지 빈곤을 동시에 고려하여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거빈곤과 지역사회 빈곤은 청소년의 가용 자원을 제한하거나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청소년에게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 부모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가족스트레스모형에 의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은 부모에게 압박감과 심리적 스트레스를 주

어 부모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함으로써 자녀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한다(Conger et al., 1992; Conger et al., 1994).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행동은 청소년 비행의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이며(김경, 2010; 김영희·안상미, 2007; 백수정·정익중, 2018; 이명진·조주연·최문경, 2007; 장혜림·정익중, 2013), 주거빈곤과 지역사회 빈곤의 이중위험은 집 안과 밖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부모에게 더 큰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어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하게 됨으로써 비행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스트레스모형(Family Stress Model)을 적용하여 부모의 양육행동을 통해 주거 및 지역사회 빈곤이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의 양육행동을 통한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개인 수준과 지역 수준의 다층구조 자료에 적합한 다수준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할 것이다. 지역사회 빈곤은 지역 수준에서 측정이 되었고, 부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 비행은 개인 수준에서 측정이 되었는데, 이러한 위계적 구조의 자료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수준에서 동일하게 분석할 경우 표준오차가 과소 추정되어 통계적 유의미성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Raudenbush & Bryk,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 수준에서 측정한 환경적 요인들이 개인 수준에서 측정한 청소년 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수준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매개효과를 분석하여 강점이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를 통해 주거빈곤과 지역사회 빈곤의 이중위험이 부모의 양육행동을 통해 비행을 증가시킨다고 밝혀진다면, 빈곤의 개념을 확장시켜 주거빈곤과 지역사회 빈곤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부모 양육행동을 통한 매개효과가 나타난다면 주거와 지역빈곤의 이중위험의 악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부모의 적절한 양육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적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 2. 이론적 배경

### 1) 가족스트레스 모형(Family Stress Model: FSM)

빈곤과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은 청소년 비행의 원인으로 꾸준히 연구되어왔다(Conger et al., 1994; Hannon, 2003; 정익중, 2009). 빈곤은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필수적인 자원을 제한하거나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주어 비행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가족 모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모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가족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김광혁·김예성, 2008). 본 연구에서는 주거빈곤과 지역빈곤의 이중

위험이 부모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양육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청소년 자녀의 비행을 증가시키는지 가족스트레스 모형을 적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스트레스 모형은 빈곤과 실직 등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부모는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 이는 심리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부적절한 양육행동으로 이어져 자녀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고 설명하는 이론이다(Conger et al., 1992; Conger et al., 1994). 경제적 압박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녀양육에 있어 부모가 더 권위적이고, 비일관적이며, 처벌적이게 되어 자녀의 행동적, 사회적, 인지적, 정서적 발달을 방해하게 되는 것이다(Simons et al., 2016). 양육행동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에서는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은 부모의 우울과 갈등의 부정적 심리상태나 학대, 방임 등과 같은 부정적 양육행동의 매개를 통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Simons et al., 2016; 조윤주, 2010). 이와 같이 빈곤은 그 자체로도 비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지만,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빈곤, 실업, 가족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등 가족 내 자원 부족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는 데에 한계가 있다. 빈곤한 가정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할 가능성이 크고, 지역사회 또한 열악할 수 있기 때문에, 빈곤의 개념을 더 넓혀 환경적인 관점에서 주거환경과 지역사회 빈곤의 영향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열악한 주거환경과 지역사회환경은 가족 빈곤과 마찬가지로 가족에게는 큰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주는 위험요인이 되며, 부모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녀에게 부적절한 양육행동을 하게 되어 자녀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좁거나 독립된 공간이 없는 열악한 집 안에 거주하는 것 뿐 아니라, 집 밖의 지역사회 환경도 이중으로 열악한 경우에 부모의 스트레스를 유발시켜 청소년 자녀에게 적절한 교육 및 지도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청소년을 가정 밖으로 내몰아 비행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스트레스 모형을 적용하여 주거빈곤과 지역사회 빈곤의 이중위험이 부모의 양육행동을 매개로 청소년 자녀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2) 주거빈곤과 청소년 비행

주거빈곤은 일반적으로 주거지가 물리적으로 열악하거나 과도하게 주거비를 지출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주거빈곤은 청소년의 신체적 발달뿐 아니라 학업 성취, 우울과 불안과 같은 심리, 정서적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김광혁·신다은, 2013; 임세희, 2010; 임세희·김선숙, 2016). 하지만 아직 주거빈곤이 청소년 비행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직접적으로 주거환경

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느끼거나 가정 밖으로 내몰리게 되어 유해환경과 접촉하거나 비행 친구와 어울리는 등 다양한 과정을 통해 비행을 저지를 수 있지만, 주거빈곤이 부모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비행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열악한 주거환경은 가족의 스트레스를 높이는 위험요인으로, 부부갈등을 유발시키고(김광혁·신다운, 2013), 부모의 교육참여, 지도감독, 가족 갈등 등 가족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임세희·김선숙, 2016),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이 비행을 증가시킬 수 있다.

부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 자녀의 비행 간의 관련성은 꾸준히 보고되었다.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자녀의 사회성이 발달하고 문제행동이 감소하며(El Nokali, Bachman, & Votruba-Drzal, 2010), 학업성취도와 학교생활 적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권순범·김월섭·진미정, 2017; 김영희, 2002) 부모의 교육참여는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는 데에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 부모의 교육참여 뿐 아니라 부모와 긍정적인 유대관계를 가지고, 부모가 적절하게 자녀를 감독하는 경우, 자녀를 직접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청소년 비행을 감소시킬 수도 있으며, 부모의 긍정적이고 적절한 통제와 감독으로 인한 긍정적 가치의 내재화로 인해 비행이 감소할 수 있다(김경, 2010). 하지만, 반대로 부모의 학대나 방임 등으로 인해 부모 자녀 간 유대관계가 부족하면 청소년 비행이 증가할 수 있다(백수정·정익중, 2018; 이명진·조주연·최문경, 2007).

기존 연구를 종합하여 볼 때, 청소년 비행은 주거빈곤에서 자주 다루어진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며, 주거빈곤과 양육행동의 상관관계 및 양육행동과 비행의 상관관계는 꾸준히 밝혀진 바, 열악한 주거환경이 부모의 양육행동을 매개로 청소년 자녀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3) 지역사회 빈곤과 청소년 비행

지역사회 빈곤은 빈곤층 비율이 높은 지역을 의미하는데, 많은 국외 연구에서는 빈곤하고 열악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경우 청소년의 학업성취도가 낮고, 비행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갖는 등 장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Church, Jaggars, & Taylor, 2012; Harding, 2008; Wodtke, Harding, & Elwert, 2011). 열악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경우, 청소년들이 부정적인 또래집단과 어울려 반사회적 행동을 학습하게 되거나, 성공적인 역할모델 부재로 인해 부정적인 가치와 태도를 학습하게 되고, 또 질 높은 교육을 받거나 자원에 접근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발달에 부정적일 수 있는 것이다(Jencks & Mayer, 1990). 지역사회 빈곤은 이렇게 청소년에

게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부모의 자원을 제한하거나 부모의 스트레스를 높여 부모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Church et al.(2012)에 의하면 열악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경우 부모의 스트레스 수준이 증가하여 자녀 양육에 있어 부적절한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져 자녀의 문제행동이 증가한다고 나타났다.

지역사회 빈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국외와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국내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빈곤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가 드물며 아직 명확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최근 연구에서 청소년 비행에 세분화해서 분석한 결과, 지역사회 빈곤은 중비행을 증가시키는 유의미한 요인이 밝혀졌으나(주영선·정익중, 2019),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빈곤의 영향력이 미미하거나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창익·윤우석, 2013; 정자유, 2012, 윤우석, 2010). 이와 같은 미미한 영향력은 지역사회 빈곤의 측정방법 때문일 수도 있다. 대부분의 국내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빈곤을 지역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로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노인 비율이 높기 때문에 지역빈곤 수준을 정밀하게 나타내는 지표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보다 더 다양한 지역사회 지표를 활용하여 열악한 지역의 영향력을 정밀하게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주거빈곤과 지역빈곤의 영향력을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분석하였다는 데에 한계가 있다. 주거빈곤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빈곤의 중요성은 인지하였지만, 이를 통제하는 수준에 머물러 주거와 지역의 상호작용은 고려하지 않았다. 지역 빈곤 연구에서는 대부분이 주거빈곤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가구 소득만 통제하는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주거환경과 지역사회환경은 분리할 수 없는 개념이며,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경우 지역사회도 열악할 가능성이 높고, 이중으로 모두 열악할 경우 가족에게 주는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수 있다. 따라서 주거빈곤과 지역사회 빈곤을 동시에 고려하여 이중으로 열악한 것이 청소년 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빈곤과 지역사회 빈곤의 이중위험이 부모의 적절한 양육행동을 제한하여 청소년 자녀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정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빈곤과 지역사회 빈곤의 이중위험은 부모의 교육참여 수준을 매개로 청소년 비행을 증가시킬 것이다.

둘째, 주거빈곤과 지역사회 빈곤의 이중위험은 부모의 지도감독 수준을 매개로 청소년 비행을 증가시킬 것이다.

셋째, 주거빈곤과 지역사회 빈곤의 이중위험은 부모의 학대 수준을 매개로 청소년 비행을 증가시킬 것이다.

### 3. 연구방법

#### 1) 조사 대상 및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제 13차년도 가구, 가구원, 아동 부가조사 자료와 통계청 자료를 결합하여 이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전국 규모의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하여 가구의 경제상태, 주거환경, 소득 등 전반적인 생활 여건과 복지 욕구 등에 대해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종단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복지패널은 주거환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한 유일한 전국 단위의 자료이기 때문에 주거빈곤에 관한 연구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3차년도 가구, 가구원, 아동부가조사 데이터를 결합하여 주거빈곤, 청소년과 가족에 관한 다양한 변수를 활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 13차년도 아동 부가조사는 10차년도에 신규로 표집된 2015년 3월 기준 초등학교 4, 5, 6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 471명과 패널 조사 가구원 중 2018년 3월 기준 중학교 1, 2, 3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표집하여 총 391명의 아동을 조사하였다.

또한 지역사회 빈곤을 측정하기 위해 통계청의 시군구별 경제활동인구, 교육정도, 여성 가구주 비율,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복지패널 지역코드와 머지(merge)하여 결합하여 분석하였다. 지역사회 자료는 한국복지패널 조사 시점과 동일하게 2018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의 5개(서울, 광역시, 시, 군, 도농복합군)와 7개(서울, 인천/경기, 부산/경남/울산, 대구/경북, 대전/충남/세종, 강원/충북, 광주/전남/전북/제주) 권역별 지역구분 변수를 고려하여 지역을 구분해 통계청의 지역사회 자료와 결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결측치를 제외한 17개 지역에 거주하는 총 356명의 중학교 학생이다.

#### 2) 주요 변수

##### (1) 독립변수: 주거빈곤과 지역빈곤의 이중위험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주거빈곤과 지역빈곤의 이중위험으로, 이분변수인 주거빈곤과 지역사회 빈곤을 각각 측정한 후 합산하여 0-2점을 가지는 연속변수로 측정하였다. 각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은 [표 1]에 제시되어있다. 먼저, 주거빈곤은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주거기준을 적용하여 구조·성능·환경 기준, 시설 기준, 면적 기준, 침실 기준 중 하나라도 미충족하면 최저기준 미달 주거로 정의하였다. 구조·성능·환경 기준은 임세희(2010) 등의 측정방법과 같이 지하주거, 반지하주거, 비닐하우스, 움막, 판잣집, 임시가건물에 생활하는 경우 구조·성능·

환경 기준 미달주거로 분류하였다. 시설기준은 단독 사용 상하수도, 단독사용 입식 부엌, 단독 사용 수세식 화장실, 단독사용 목욕시설 중 하나라도 필수설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 시설 기준 미달주거로 분류하였다. 면적 기준은 최저주거기준을 적용하여 1인 가구는 12평, 2인 가구는 20평, 3인 가구는 29평 등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치 이하면 면적 기준 미달주거로 분류하였다. 침실규정은 김혜승·김태환(2008)의 수정된 침실기준을 적용하여, 가구원 수에 따른 침실 분리원칙에 위배되면 침실 기준 미달주거로 분류하였다. 위의 네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미충족하면 최저기준 미달주거로 정의하여 1로 코딩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주거비 과부담도 주거빈곤의 개념에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거의 물리적 환경과 지역사회 빈곤과의 이중위험을 강조하고자 주거비 과부담은 주거빈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영향력에 대해 잘 알려진 Wodtke et al. (2011)의 지역사회 불이익 지수(neighborhood disadvantage index)를 활용하여 지역별 빈곤율, 여성 가구주 비율, 고졸 미만 가구 비율, 대졸 이상 가구 비율, 관리직/전문직 비율을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한 후 산출된 지수를 통해 상위 20% 이상이면 빈곤한 지역으로 정의하여 1로 코딩하였다. 주성분을 구성하는 데 사용된 각 변수의 가중치와 총 분산의 비율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첫 번째 주성분은 전체 분산의 약 68%를 차지하며, 빈곤율이 높을수록(+), 여성 가구주 비율이 높을수록(+), 고졸 미만 가구 비율이 높을수록(+), 대졸 이상 가구 비율이 낮을수록(-), 관리직/전문직 비율이 낮을수록(-) 지역사회 불이익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분 변수인 주거빈곤과 지역빈곤을 합산하여 0은 둘다 비빈곤, 1은 둘 중 하나만 빈곤, 2는 주거와 지역 모두 빈곤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 (2) 종속변수: 청소년 비행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청소년 비행은 Achenbach(1991)가 개발한 아동, 청소년 행동평가 척도 (Child Behavior Checklist: CBCL)를 오경자 등(1998)이 번안한 척도 중 비행에 해당하는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가출한다’, ‘집 밖에서 남의 물건을 훔친다’, ‘나쁜 일을 저지르고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닌다’ 등 13개의 비행 관련 문항에 대해 ‘1 점: 전혀 아니다’, ‘2점: 그렇다’, ‘3점: 자주 그렇다’의 3점 척도로 응답한 항목을 0, 1, 2로 재코딩하여 합산한 점수로 비행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총점이 높을수록 비행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한다.

## (3) 매개변수: 부모의 양육 행동

부모의 양육 행동은 부모의 교육참여, 부모의 지도감독, 학대로 구성하였다. 이 세 가지 양육



행동 변수는 복지패널 아동부가조사 자료에서 조사한 모든 양육행동 변수를 활용한 것이다. 먼저 부모의 교육참여는 ‘부모님과 나는 학교 생활이나 친구에 대해 대화한다’, ‘우리 부모님은 학교 선생님(들)과 이야기하기 위해 학교에 찾아가신다’, ‘우리 부모님은 학교가 주최하는 학부모회 모임 등과 같은 행사에 참석하신다’, ‘우리 부모님은 내가 숙제를 다 했는지 관심을 가지고 확인한다’에 대해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항상 그렇다’의 4점 척도를 1=0, 2=1, 3=2, 4=3으로 재코딩하여 합산한 점수를 이용하였다. 총점이 높을수록 부모의 교육참여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 간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0.74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지도감독은 ‘부모님은 내가 집에 없을 때 어디에 누구와 함께 있는지 알고 계신다’, ‘부모님은 내가 몇시에 들어오는지 알고 계신다’, ‘부모님은 내가 집에 없을 때 무엇을 하는지 알고 계신다’, ‘부모님은 내가 어른 없이 집에 있을 때 전화를 하신다’의 4개 문항(4점 척도)에 대해 1=0, 2=1, 3=2, 4=3으로 재코딩하여 합산한 점수를 이용하였다. 총점이 높을수록 부모의 지도감독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문항 간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0.84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대는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하게 맞은 적이 있다’, ‘내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부모님이 꾸짖은 적이 있다’, ‘내가 늦게 와도 부모님은 관심이 없다’ 등 신체적, 정서적 학대 및 방임 관련 8개 문항(5점 척도)에 대해 1-5점을 0-4점으로 재코딩하여 합산한 점수를 이용하였다. 총점이 높을수록 아동학대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문항 간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0.69이다.

#### (4)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청소년 비행 및 부모의 양육행동과의 관련성이 밝혀진 청소년의 성별(남자/여자), 학업성적, 가정환경과 또래집단 변수를 고려하였다. 청소년의 학업성적은 학교 전 과목 평균 점수에 대해 ‘1점: 아주 못함’, ‘2점: 중간 이하’, ‘3점: 중간’, ‘4점: 중간 이상’, ‘5점: 아주 잘함’의 5점 척도를 활용하여 1=0, 2=1, 3=2, 4=3, 5=4점으로 재코딩하였다. 총점이 높을수록 학업 성적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가정환경은 결손 가족 여부, 가구주의 교육 수준, 소득으로 구성하였다. 결손 가족 여부는 모자, 부자, 조손 가구일 경우 0으로 코딩하였고, 어머니와 아버지와 같이 거주하는 경우를 1로 코딩하였다. 가구주의 교육 수준은 가구주가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 1,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코딩하였다. 소득은 주거빈곤과 지역빈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을 이용하여 통제하였다.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자연로그화하여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또래관계는 친구애착 정도와 비행친구 수로 측정하였다. 친구애착은 ‘나는 그 친구들과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고 싶다’, ‘나는 그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

‘나는 그 친구들과 같은 생각과 감정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나는 그 친구들과 서로의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편이다’에 대해 ‘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로 5점 척도로 응답한 것을 1=0, 2=1, 3=2, 4=3, 5=4점으로 재코딩하여 합산하였다. 총점이 높을수록 친구애착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문항 간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0.79이다. 비행 친구 수는 친한 친구 중 근신, 정학, 퇴학 등의 처벌 경험이나 경찰서에 잡혀간 경험이 있는 친구 수를 합산하여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표 1] 변수 정의 및 측정방법**

변수	변수정의	측정방법
주거 빈곤	(1) 구조·성능·환경 기준: 지하주거, 반지하주거, 비닐하우스, 움막, 판잣집, 임시가건물에 거주하는 경우=1 (2) 시설 기준: 단독사용 상하수도,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1 (3) 면적 기준(m <sup>2</sup> /평): 1인=12/3.6, 2인=20/6.1, 3인=29/8.8, 4인=37/11.2, 5인=41/12.4, 6인=49/14.8, 7인=57/17.2, 8인=65/19.6, 9인=73/22.0 미만인 경우=1 (4) 침실 기준: 1인=1, 2인=1, 3인=2, 4인=3, 5인=3, 6인=4개 침실 또는 침실로 활용이 가능한 방 개수 미만인 경우=1	구조·성능·환경 기준, 시설 기준, 면적 기준, 침실 기준 중 하나라도 미충족인 경우 최저기준미달 주거=1
독립	지역별 (1)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2) 여성 가구주 비율, (3) 고졸 미만 가구 비율, (4) 대출 이상 가구 비율, (5) 관리직/전문직 비율을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하여 각 변수의 가중치를 산출한 후 주성분 구성(지수 산출)	산출된 지수가 상위 20% 이상인 경우 지역빈곤=1
주거 및 지역 빈곤 이중 위험	이분 변수(0/1)인 주거빈곤과 지역빈곤을 합하여 산출	0=둘 다 비빈곤 1=하나만 빈곤 2=모두 빈곤
중속	청소년 비행 3점 척도(1=전혀 아니다~3=자주 그렇다)로 측정된 13개 문항 이용	0~2점으로 재코딩한 후 합산하여 평균
매개	부모의 교육참여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로 측정된 4문항 이용	0~3점으로 재코딩한 후 합산하여 평균
	부모의 지도감독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4=매우 그렇다)로 측정된 4문항 이용	0~3점으로 재코딩한 후 합산하여 평균
	부모의 학대 5점 척도(1점=전혀 없었다, 2점=1년에 1~2번 정도, 3점=2~3개월에 1~2번 정도, 4점=한 달에 1~2번 정도, 5점=일주일에 1~2번 정도)로 측정된 8문항 이용	0~4점으로 재코딩한 후 합산하여 평균
성별	남자=0, 여자=1	
학업성적	5점 척도(1점=아주 못함~5점=아주 잘함)로 측정된 전 과목 평균 성적 이용	0~4점으로 재코딩한 후 평균
결혼 가족 여부	모자, 부자, 조손 가구일 경우=0, 어머니와 아버지와 거주할 경우=1	
통제	가구주 교육 수준 4년제 대학교 졸업 못한 경우=0, 졸업한 경우=1	
	가구 소득 4차분소득을 자연로그화하여 산출	
또래애착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로 측정된 4문항 이용	0~4점으로 재코딩한 후 합산하여 평균
비행친구 수	친한 친구 중 근신, 정학, 퇴학 등의 처벌 경험이나 경찰서에 잡혀간 경험이 있는 친구 수 합산	

**[표 2] 지역사회 빈곤의 주성분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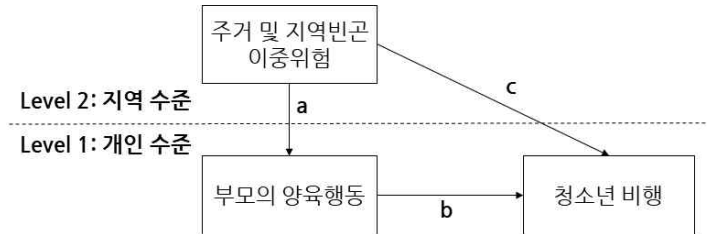
지역사회 변수	1st PC Weight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0.39
여성 가구주 비율	0.22
고졸 미만 가구 비율	0.52
대졸 이상 가구 비율	-0.51
관리직/전문직 가구 비율	-0.52
Component variance	3.39
Proportion total variance explained	0.68

### 3) 분석 방법

모든 자료 분석은 Stata program을 사용하였으며, 자료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 및 주요 변수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백분율 등을 산출하였고, 둘째, 주요 변수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셋째, 자료의 위계적 구조를 고려하기 위해 집단내 상관관계수(Intra-class correlation: ICC)를 측정하여 다수준 분석이 적합한지 판단하였다. 개인은 지역에 속해있고(nested), 지역사회 빈곤은 지역 수준에서 측정이 되었기 때문에 자료의 위계적 구조를 고려하여 다층구조에 적합한 분석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자료의 위계적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수준에서 동일하게 분석할 경우 표준오차가 과소 추정되어 통계적 유의미성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Raudenbush & Bryk, 2002). ICC는 종속변수의 총 분산 가운데에 집단(지역)간 차이에 의해 설명되어진 분산량을 말하는데, 0에서 1사이의 점수 분포를 가지며 점수가 낮을수록 종속변수의 집단간 차이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Snijder & Bosker, 2012). 마지막으로, 주거빈곤과 지역빈곤의 이중위험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다수준 구조방정식 모형(Multi-level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LSE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수준 구조방정식 모형은 개인이 지역에 내재되어있는(nested) 위계적 구조의 자료에 적합한 분석 방법으로, 지역 수준에서 측정된 주거와 지역빈곤의 이중위험이 개인 수준에서 측정된 청소년 비행과 부모 양육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는 데에 장점이 있다. 또한 다수준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한 매개효과 분석은 각각의 경로에 대한 개별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매개효과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하나의 분석모형에서 매개효과에 대한 정확한 값을 추출할 수 있다는 데에 장점이 있다(Preacher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Preacher et al. (2011)과 Zhang et al. (2009)의 방법을 활용하여 “2-1-1” 경로 분석(path analysis)을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그림 1] 참조). Stata 14.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Stata의 Generaliz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GSEM)의 multilevel 기능을 이용하여 각 경로의 표준화계수를

산출하였으며, nlcom(nonlinear combination of estimators) 기능을 이용하여 직접, 간접, 전체 효과를 산출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기 위해 AIC, BIC, log likelihood를 이용하였다. 모든 분석 시 횡단면 가중치를 사용하였다.

[그림 1] “2-1-1” 다수준 매개효과 모형



## 4. 연구결과

### 1) 조사 대상 및 주요 변수의 특성

[표 3]은 조사 대상 및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치를 보여준다. 먼저 본 연구의 주거빈곤과 지역빈곤의 이중위험은 평균 0.34(SD=0.53)이었으며, 약 19%가 주거 빈곤 상태였고, 약 15%가 빈곤한 지역에 거주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청소년 비행 수준은 평균 0.70(SD=1.08)이었다. 부모의 교육참여 정도는 평균 6.43(SD=2.54), 부모의 지도감독 수준은 평균 8.55(SD=2.40)이었다. 부모의 학대 정도는 평균 0.94(SD=2.40)로 낮은 수준이었다. 조사 대상자 중 약 50%가 여자 청소년이었으며, 학업성적은 평균 2.05(SD=0.80)점이었다. 청소년 중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96%, 모자, 부자, 조손 가정이 4%였다. 조사 대상자의 약 38%가 가구주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으며, 평균 가구 소득은 연간 7,331만원(SD=4,228만원)이었으며, 자연로그화한 가구 소득은 평균 8.77(SD=0.52)이었다. 조사 대상자의 친구애착 정도는 평균 13.37(SD=2.40)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평균 비행친구 수는 0.24(SD=1.3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N
독립	주거 빈곤	0.19	0.39	0	1	356
	지역 빈곤	0.15	0.36	0	1	17
	주거 및 지역 빈곤의 이중 위험	0.34	0.53	0	2	17
종속	청소년 비행	0.70	1.08	0	5	356
	부모의 교육참여	6.43	2.54	0	12	356
매개	부모의 지도감독	8.55	2.40	0	12	356
	부모의 학대	0.94	2.17	0	12	356
	여자 청소년	50%				356
통제	학업성적	2.05	0.80	1	3	356
	어머니 아버지 둘다 함께 거주	96%				356
	가구주 4년제 대학 졸업	38%				356
	가구 소득(만원)	7,331.57	4228.72	329	41972	356
	자연로그화한 가구 소득	8.77	0.52	5.79	10.64	356
	친구애착	13.37	2.40	4	16	356
	비행 친구 수	0.24	1.34	0	15	356

## 2) 상관관계 분석

[표 4]는 주요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주거빈곤과 지역빈곤의 이중위험이 높을수록( $r=0.14$ ,  $p<.01$ ), 부모의 교육참여가 낮을수록( $r=-0.22$ ,  $p<.001$ ), 부모의 학대 수준이 높을수록( $r=0.29$ ,  $p<.001$ ) 청소년 비행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모의 지도감독 수준은 청소년 비행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부모의 양육행동과 주거 및 지역빈곤의 이중위험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부모의 교육참여 수준이 낮을수록( $r=-0.22$ ,  $p<.001$ ), 부모의 지도감독 수준이 낮을수록( $r=-0.17$ ,  $p<.01$ ) 주거 및 지역빈곤의 이중위험 수준이 높았다. 하지만 부모의 학대는 주거 및 지역빈곤의 이중위험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부모의 지도감독이 높을수록( $r=0.49$ ,  $p<.001$ ), 부모의 학대 정도가 낮을수록( $r=-0.14$ ,  $p<.01$ ) 부모의 교육참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모의 학대는 부모의 지도감독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상관관계 분석은 두 변수간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란변수(confounding variable)를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허위관계를 나타낼 수 있어 해석상에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해야 주거빈곤과 지역빈곤의 이중위험이 양육행동을 매개로 비행행동에 영향을 끼치는지 보다 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

할 것이다. 따라서 다음으로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변수, 가정환경, 또래집단 변수들을 통제 한 가운데에 다수준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표 4]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N=356)

	1	2	3	4	5
1. 청소년비행	1.00				
2. 이중위험	0.14**	1.00			
3. 부모의 교육참여	-0.22***	-0.22***	1.00		
4. 부모의 지도감독	-0.06	-0.17**	0.49***	1.00	
5. 부모의 학대	0.29***	-0.04	-0.14**	-0.03	1.00

### 3) 기초모형 분석 결과

먼저 매개효과 검증에 앞서 다수준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한 ICC 분석결과, 전체 분산 중 지역수준의 분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0.000에서 0.028로 작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종속변수의 총 분산 중 지역 수준이 최대 2.8%를 설명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ICC가 0.05 이상인 경우 다수준 모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지만, 0.05보다 작은 경우에도 집단 간 차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 결과가 있거나(Heck & Thomas, 2009), 다층 자료에서 상위수준의 무선평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면 ICC 크기와는 무관하게 지역 간 차이에 의해 설명되는 분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다수준 분석을 실시하기도 한다(Raudenbush & Bryk,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층모형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다층구조 자료를 고려한 다수준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표 5] 기초모형 검증 결과

	고정효과		무선평과				ICC
	절편 ( $\gamma_{00}$ )		지역 수준( $\mu_{0j}$ )		개인 수준( $\gamma_{ij}$ )		
	Coef.	SE	SD	Variance Component	SD	Variance Component	
청소년 비행	0.652	0.065	0.120	0.014*	1.028	1.056*	0.013
부모의 교육참여	6.303	0.138	0.000	0.000*	2.598	6.751*	0.000
부모의 지도감독	8.482	0.174	0.412	0.170*	2.424	5.878*	0.028
부모의 학대	0.862	0.115	0.000	0.000*	2.173	4.720*	0.000

주: \*p<.05

#### 4) 다수준 구조방정식을 통한 매개효과 분석 결과

[표 6]은 다수준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한 매개효과 분해 결과를 나타낸다. 먼저, 통제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모형 1의 분석결과, 주거빈곤과 지역빈곤의 이중위험은 청소년 비행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며( $b=0.24, p<.1$ ), 부모의 교육참여를 매개로 간접적으로도 청소년 비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b=0.10, p<.05$ ). 통제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해도 부모의 교육참여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빈곤과 지역빈곤의 이중위험은 청소년 비행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며( $b=0.24, p<.05$ ), 부모의 교육참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b=0.07, p<.05$ ). 하지만 부모의 지도감독과 학대를 통한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6] 주거 및 지역빈곤의 이중위험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의 효과분해 (N=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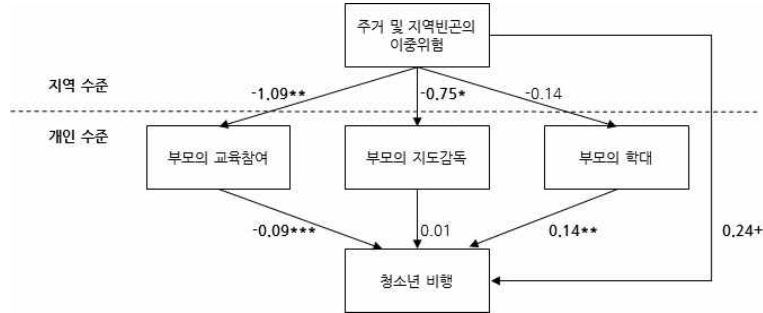
주거 및 지역빈곤의 이중위험 → 청소년 비행	모형 1		모형 2	
	Coef.	(SE)	Coef.	(SE)
부모의 교육참여 통한 매개효과	0.10 *	(0.04)	0.07 *	(0.03)
부모의 지도감독 통한 매개효과	-0.01	(0.03)	-0.02	(0.02)
부모의 학대 통한 매개효과	-0.02	(0.02)	-0.02	(0.02)
총 간접 효과	0.07	(0.07)	0.04	(0.05)
직접효과	0.24 +	(0.12)	0.24 *	(0.10)
총효과	0.31 *	(0.13)	0.27 *	(0.12)
Level 2: Variance Component	0.004 *		0.001 *	
Level 1: Variance Component	0.923 *		0.892 *	
ICC	0.004		0.001	
$\chi^2$	54.53 ***		70.14 ***	
AIC	997.25		998.18	
BIC	1024.37		1052.43	
Log Likelihood	-491.62		-485.09	

주: 모형 1은 통제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모형이며, 모형 2는 통제변수를 포함한 모형임.  
ICC=Intraclass Coefficient. + $p<.1$ , \* $p<.05$ , \*\* $p<.01$ , \*\*\* $p<.001$ .

각 경로의 표준화계수는 [그림 2]와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통제변수를 포함하지 않은 모형 1의 경우, 주거 및 지역빈곤의 이중위험이 높아질수록 청소년 비행이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0.24, p<.1$ ). 양육행동을 통한 매개 경로를 살펴보면, 주거 및 지역빈곤의 이중위험은 부모의 교육참여 수준을 감소시켰으며( $b=-1.09, p<.01$ ), 낮은 부모의 교육참여는 청소년 비행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b=-0.09, p<.001$ ). 주거 및 지역빈곤의 이중위험은 부모의 지도감독 수준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였지만( $b=-0.75, p<.05$ ), 부모의 지도감독은 청소년 비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학대의 경우, 학대와 청소년 비행

은 정적(+) 영향관계를 보였지만( $b=0.14, p<.01$ ), 주거 및 지역빈곤의 이중위험은 학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아 매개효과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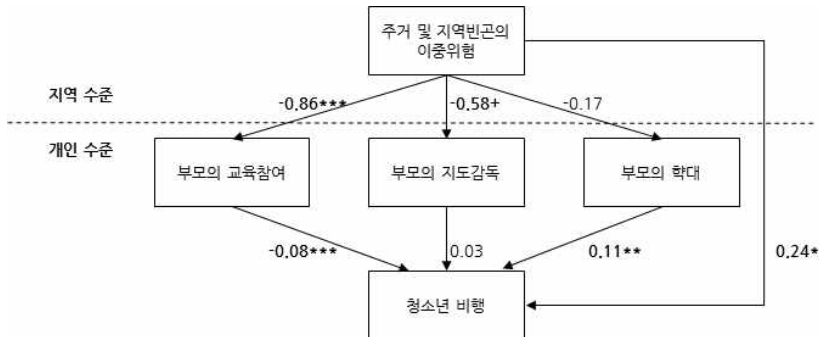
[그림 2] 주거 및 지역빈곤의 이중위험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경로와 표준화계수 (모형 1)



+ $p<.01$ , \*  $p<.05$ , \*\*  $p<.01$ , \*\*\*  $p<.001$

통제변수를 포함한 모형 2 분석 결과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및 지역빈곤의 이중위험이 증가할수록 청소년 비행이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0.24, p<.05$ ). 특히 주거 및 지역빈곤의 이중위험이 부모의 교육참여를 감소시켜( $b=-0.86, p<.001$ ), 청소년 비행에도 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0.08, p<.001$ ). 주거 및 지역빈곤의 이중위험은 부모의 지도감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지만( $b=-0.58, p<.1$ ), 부모의 지도감독은 청소년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아 매개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대의 경우, 청소년 비행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나타냈지만( $b=0.11, p<.01$ ), 주거 및 지역빈곤의 이중위험은 학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않아 학대를 통한 매개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3] 주거 및 지역빈곤의 이중위험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경로와 표준화계수 (모형 2)\*



+ $p<.01$ , \*  $p<.05$ , \*\*  $p<.01$ , \*\*\*  $p<.001$

\* 통제변수로 청소년 성별, 학업성적, 결손가족 여부, 가구주 교육 수준, 가구 소득, 또래애착, 비행친구 수가 포함된 모형임



## 5.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빈곤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왔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빈곤을 가족 내 자원에만 초점을 두고 소득을 중심으로 빈곤의 영향력에 대해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빈곤한 경우 열악한 주거환경과 지역사회 환경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김진희·이상록, 2011) 본 연구에서는 빈곤의 개념을 확장하여 주거빈곤과 지역사회 빈곤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주거와 지역사회는 분리할 수 없는 개념이며, 두 가지 환경 모두 열악한 상태에 놓인 것은 가족에게는 더 큰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고, 이는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행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Conger et al., 1992; Conger et al., 1994), 본 연구에서는 가족스트레스모형(Family Stress Model)을 적용하여 주거와 지역사회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이중빈곤의 위험성과 양육행동의 매개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13차년도 가구, 가구원, 아동부가조사와 통계청의 다양한 지역별 지표들을 결합하여, 지역 수준과 개인 수준의 다층구조 자료 분석에 적합한 다수준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부모의 양육행동은 부모의 교육참여, 지도감독, 학대를 통해 구성하였다.

분석결과, 주거빈곤과 지역사회 빈곤의 이중위험은 가구 소득을 비롯한 다양한 개인·가족적 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부모의 교육참여 수준을 매개로 청소년 자녀의 비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빈곤과 지역사회 빈곤의 이중위험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교육참여 수준이 감소하였으며, 감소한 교육참여 수준을 통해 청소년 비행이 증가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가족스트레스모형을 지지하였으며 기존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가족스트레스모형에 따르면 경제적 궁핍함은 부모의 스트레스를 높여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가족관계를 통해 청소년 자녀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하는데(Conger et al., 1992; Conger et al., 1994; 김광혁·김예성, 2008), 본 연구결과는 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와 지역사회가 이중으로 빈곤하면 부모의 교육참여 수준을 낮추어 청소년 비행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부모의 교육참여 수준에 따른 청소년 자녀의 비행 감소는 기존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며(조윤주, 2014), 부모와 학교의 긴밀한 관계와 교육참여가 비행을 통제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부모의 교육참여는 자녀와 학교생활이나 친구에 대해 얼마나 대화하고, 부모님이 선생님과 대화하기 위해 학교에 찾아가는지, 학교 행사에 참여하는지, 숙제나 교육에 관심이 있는지로 측정하였는데, 이처럼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학교와 긴밀히 협력할 때 청소년 자녀의 비행을 감소시킬 수 있다.

교육참여를 통한 매개효과는 나타난 반면, 부모 지도감독의 영향력이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은 청소년 집단의 속성 때문일 수도 있다. 부모의 지도감독은 부모님이 내가 누구와 있는지, 집에 몇 시에 들어오는지, 무엇을 하는지 알고 계신지, 또 어른 없이 집에 있을 때 전화를 하시는지에 관한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는데, 청소년기에는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서 독립과 자율성의 욕구로 인해 부모의 지도감독을 부정적인 감시와 통제로 받아들이고, 부모의 간섭을 거부하여 결국 부모의 지도감독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은 설득력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부모의 교육참여를 통한 매개효과는 나타났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결국은 자율성과 독립을 추구하지만 교육적인 지원을 받는 측면에서는 아직도 부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집단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청소년기에는 독립의 욕구와 의존적 욕구가 동시에 작용하는 시기인데, 독립의 욕구로 인해 부모의 지도감독을 통한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독립하기에는 이른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와 학교와의 관계에서는 부모를 의지하는 이중적인 양상을 보여(조윤주, 2014) 결국 부모의 교육참여를 통한 매개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났을 수 있다. 비록 청소년 비행의 측면에서 부모의 지도감독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주거빈곤과 지역사회 빈곤의 이중위험은 부모의 지도감독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중빈곤의 위험성은 부모 양육행동에 영향을 끼쳐 가족스트레스모형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책적 함의로는 주거환경과 지역사회 환경이 열악할수록 주거와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가정이 일차적인 지지단위로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부모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특히 주거와 지역사회가 이중으로 빈곤할수록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쳐 청소년 비행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및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과 지역사회에 거주할수록 부모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교육은 대부분이 신청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정작 부모교육이 절실한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오정수·정익중, 2017). 따라서 주거환경과 지역사회 환경이 모두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집중 표적화해서 취약가정에 직접 찾아가 상담과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집체교육으로는 취약가정을 포괄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드림스타트 센터나 희망복지지원단 등 빈곤과 관련 기관들이 취약계층에게 직접 찾아가서 방문형태의 개별적인 부모교육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분석 결과, 부모의 학대를 통한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각 영향의 경로를 살펴보면, 부모의 학대 수준은 청소년 비행을 증가시키는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나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하지만(백수정·정익중, 2018; 이명진 외, 2007; 조윤주, 2010), 주거빈곤과 지역사회 빈곤의 이중위험과는 영향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한국복지패널 아동부가

조사 참여자들의 학대 수준이 그리 높지 않은 편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 본 연구 분석대상의 부모 학대수준은 평균 0.94점으로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학대는 꾸준히 청소년 비행의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라고 주목되었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 학대의 위험성이 높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석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 주거빈곤과 지역사회 빈곤의 이중위험은 모든 매개요인을 통제하여도 직접적으로도 청소년 비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으로 측정된 빈곤이 청소년 비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며(정익중, 2009; 조윤주, 2010), 본 연구에서 빈곤의 개념을 확장시켜 물리적 빈곤의 영향력에 대해 분석한 결과도 청소년 비행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으로 밝혀졌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 비행을 감소시키기 위해 주거복지와 지역사회복지를 강화하여, 열악한 주거환경과 지역사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열악하고 빈곤한 지역사회에 도서관이나 공공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거 및 지역사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화된 건축물이 밀집되어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전면철거방식으로 획일적으로 진행되어 주민들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주거환경 개선도 물론 중요한 정책적 대안이기는 하지만, 빈곤층의 집중화(poverty concentration) 문제를 유발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공급 위주의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지역사회로 이주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지원대책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MTO(Moving to Opportunity) 사업을 통해 빈곤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주택 바우처(Section 8 voucher)를 제공하여 더 나은 지역으로의 이주를 지원하였다. 연구결과, 이주한 청소년에게서 학업 성취도가 높아지고, 비행행동이 감소하고, 장기적으로도 소득이 증가하는 등 장단기적 효과가 나타났다(Chetty et al., 2016). 전세와 매매가 주를 이루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이주를 지원하는 정책은 어려운 시도일 수도 있으나, 수요자 중심에서 보다 더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험적 방법인 미국의 바우처 제도와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소득에 따라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주거급여액이 더 나은 곳으로 이주를 하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고, 현행 주거급여법은 가족 구성원의 성별, 장애여부, 연령 등 가구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데에 한계가 있다. 특히, 취약계층인 아동과 청소년이 있는 저소득 가구는 한 방에 여러 명이 거주하는 주거과밀 문제에 놓여있는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홍인옥, 2006) 최저 주거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아동 주거권과 관련한 보장이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 시흥시는 기존 주거급여 지원 대상 가구 중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해 아동 1인당 기존 지원액에 30%의 추가

적인 아동 주거비를 지원하는 등 선도적으로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시흥시, 2019). 본 연구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적절한 주거와 지역사회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아동 주거권 보장을 위해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사회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적 함의로는, 빈곤 연구가 대부분 소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주거빈곤과 지역사회 빈곤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이중위험으로 빈곤의 개념을 확대한 것은 의미있는 시도였다고 판단된다. 다차원적 빈곤에 대한 연구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빈곤의 정의를 이제는 소득뿐 아니라 주거와 지역사회 관점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위의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먼저, 본 연구는 13차년도 복지패널 아동부가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지만, 분석대상이 신규로 표집된 가구라 종단적 변화를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빈곤은 지속적 빈곤인지 일시적 빈곤인지에 따라서도 영향력이 다르고, 기존 국외의 지역사회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빈곤의 누적효과에 대해서 강조하였기 때문에(Chetty et al., 2016; Wodtke et al., 2011), 보다 더 종단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주거빈곤과 지역사회 빈곤의 누적효과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한 지역사회불이익 척도는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을 측정하기에는 적합한 척도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물리적으로 열악한 지역사회 환경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척도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 권순범, 김월섭, 진미정 (2017). 학부모 학교참여가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2). 119-138.
- 김경 (2010). 청소년 비행행동에 있어서 부모요인과 친구요인의 상호작용 효과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2(4). 1-21.
- 김광혁, 김예성 (2008). 가족빈곤이 아동학대 및 방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부모의 우울 및 가족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7(5). 847-859.
- 김광혁, 신다은 (2013). 빈곤한 주거환경과 학업성취도의 관계 메커니즘: 부부 및 가족갈등과 부정적 양육행동의 매개적 작용을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총. 28(2). 73-93.
- 김세원 (2009). 지역사회 특성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3수준 다층성장모형을 적용하여. 한국아동복지학. 28. 101-135.
- 김영희 (2002). 저소득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어머니의 자녀교육참여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3(1). 1-14.
- 김영희, 안상미 (2007).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갈등과 청소년의 우울 및 비행. 청소년학연구. 15(2). 1-31.
- 김진석, 유비, 장희선, 김경희, 김기현 (2018). 지역사회 빈곤과 아동 재학대 관계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63. 79-109.
- 김진희, 이상록 (2012). 빈곤과 청소년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주거환경, 이웃환경,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4(2). 365-387.
- 김진희, 이상록 (2011). 빈곤, 주거환경, 이웃환경과 청소년발달의 구조적 관계. 청소년학연구. 18(5). 385-411.
- 김창익, 윤우석 (2013). 지역사회의 생태학적 특성이 비행친구와 비행에 미치는 영향 검증. 청소년복지연구. 15(2). 61-85.
- 김현옥, 박해선 (2017). 아동학대와 양극화, 지역빈곤 및 사회적 고립에 대한 개념적 근접성 분석. 사회복지정책과실천. 3(1). 5-35.
- 김혜승, 김태환 (2008). 최저주거기준의 의의와 기준 미달가구 규모 추정. 국토논단. 96-107.
- 백수정, 정익중 (2018). 아동학대가 청소년 온라인/오프라인 비행에 미치는 영향: 누적위험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20(1). 235-253.
- 시흥시 (2019). 주거비 지원사업. <https://www.siheung.go.kr>.
- 오경자, 이해련, 홍강의, 하은혜 (1998). K-CBCL 아동청소년 행동평가 척도.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오정수, 정익중 (2018). 아동복지론(제3판). 서울: 학지사.
- 윤우석 (2010). 청소년 지위비행과 부모의 양육행위에 지역사회의 생태학적 특성이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21(1). 175-202.
- 이명진, 조주연, 최문경 (2007). 부모의 아동학대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사회연구. 14(2). 9-42.
- 이봉주, 김광혁 (2006). 가족빈곤과 가족구조가 아동학대와 방임에 미치는 영향. 아동권리연구. 11(3). 333-359.
- 임세희 (2010). 주거빈곤이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62(4). 377-402.

- 임세희, 김선숙 (2016). 주거빈곤기간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56. 133-164.
- 장혜림, 정익중 (2013).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40. 33-61.
- 정익중 (2009). 빈곤과 비행 발달궤적의 역동적 관계. *아동학회지*. 30(3). 113-125.
- 정자유 (2012). 지역사회환경이 청소년의 일탈에 미치는 영향: 일탈친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3(1). 89-119.
- 조윤주 (2014). 청소년의 보호 요인과 위험 요인이 비행과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2(5). 495-507.
- 조윤주 (2010). 빈곤지위와 청소년 비행의 관계에서 학대 및 방임의 매개효과 검증. *인간발달연구*. 17(1). 85-101.
- 주영선, 정익중 (2019). 지역사회 빈곤, 범죄, 유해환경 수준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가? *한국청소년연구*. 30(4). 33-62.
- 진혜민, 배성우 (2012). 청소년비행 관련 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4(2). 193-221.
- 통계청 (2019). 2019 청소년 통계. [www.kostat.go.kr](http://www.kostat.go.kr).
- 홍인옥 (2006). 저소득 아동·청소년의 주거실태 조사결과 및 주거빈곤 유형구분. *도시와 빈곤*. 79. 55-83.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4-18 and 1991 profile*. Burlington: University of Vermont.
- Chetty, R., Hendren, N. & Katz, L. F. (2016). The effects of exposure to better neighborhoods on children: New evidence from the Moving to Opportunity experi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106(4). 855-902.
- Church, W., Jagers, J. & Taylor, J. (2012). Neighborhood, poverty, and negative behavior: An examination of differential association and social control theory.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4. 1035-1041.
- Conger, R. D., Conger, K. J., Elder, G. H., Lorenz, F. O. Simons, R. L. & Whitebeck, L. B. (1992). A family process model of economic hardship and adjustment of early adolescent boys. *Child Development*. 63. 526-541.
- Conger, R. D., Ge, X., Elder, G. H., Lorenz, F. O. & Simons, R. L. (1994). Economic stress, coercive family process and developmental problems of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5, 541-561.
- El Nokali, N. E., Bachman, H. J. & Votruba-Drzal, E. (2010). Parent involvement and children's academic and social development in elementary school. *Child Development*. 81(3). 988-1005.
- Hannon, L. (2003). Poverty, delinquency, and educational attainment: cumulative disadvantage or disadvantage saturation?. *Sociological Inquiry*. 73(4). 575-594.
- Harding, D. (2008). Neighborhood violence and adolescent friendship. *International Journal of Conflict and Violence*. 2(1). 28-55.
- Heck, R. & Thomas, S. (2009). *An introduction to multilevel modeling techniques*(2nd ed). New York, NY: Routledge.
- Jencks, C. & Mayer, S. (1990). The social consequences of growing up in a poor neighborhood, In Lynn, L. & McGeary, M, eds. *Inner-city poverty in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111-186.

- Preacher, K. Zhang, Z. & Zyphur, M. (2011). Alternative method for assessing mediation in multilevel data: The advantages of multilevel 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8*(2), 161-182.
- Raudenbush, S. W. & Bryk, A. S. (2002). *Hierarchical linear models: Applications and data analysis methods* (Vol. 1). Sage.
- Simons, L. G., Wickrama, K. A. S., Lee, T. K., Landers-Potts, M., Cutrona, C. & Conger, R. D. (2016). Testing family stress and family investment explanations for conduct problems among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8*(2), 498-515.
- Wodtke, G., Harding, D. & Elwert, F. (2011). Neighborhood effects in temporal perspective: The impact of long-term exposure to concentrated disadvantage on high school gradu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6*(5), 713-736.
- Zhang, Z. Zyphur, M. & Preacher, K. (2009). Testing multilevel mediation using hierarchical linear models problems and solutions.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 *12*, 695-719.

Abstract

## The Double Burden of Housing and Neighborhood Poverty on Juvenile Delinquency: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ing Behavior

Young Sun Joo\* & Ick-Joong Chung\*\*

This study examines whether parenting behaviors (i.e., parent academic involvement, parental monitoring, and parental abuse) explain the effect of housing and neighborhood poverty on juvenile delinquency. This study merged data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and the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E-local services, using multi-level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LSEM) to analyze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ing behaviors. The findings suggest that in families suffering double burden of housing and neighborhood poverty, parent academic involvement decreases, which in turn increases juvenile delinquency. An increase in housing and neighborhood poverty also directly increases juvenile delinquency. However, parental monitoring and parental abuse do not mediate the effect of housing and neighborhood poverty on juvenile delinquency. The policy implications include alleviating housing and neighborhood poverty, as well as encouraging parents' involvement in school and/or adolescents' academic activities, to prevent juvenile delinquency.

**Keywords:** housing poverty, neighborhood poverty, juvenile delinquency, parenting behavior

◆ 2019. 10. 10. 접수 / 2019. 11. 26. 1차수정 / 2019. 12. 04. 게재확정

\* First author, Postdoctoral Researche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BK21 Plus, Ewha Womans University (youngsunjoo86@gmail.com)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Ewha Womans University(ichung@ewha.ac.kr)